

지난 10년간 농식품 소비 변화 살펴본다

농진청, 26일 '2020 소비트렌드 발표대회' 온라인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10년간의 농식품 소비 형태가 젊은 소비, 건강 중시, 간편 소비, 먹거리? 구매 장소 다양화'로 변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2020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누적된 전국 1,486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대의 농식품 구매액은 68%, 30대는 30% 증가해 젊은 층이 새로운 농식품 구매의 주체로 등장했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구매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2030세대의 축산물 구매비중은 46.3%로, 4050세대의 35.7%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가공식품 구매액도 지난 10년간 7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농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은 안전한 농식품, 건강 증진, 영양성분 등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유행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이 연령층에서 지난 10년간 블루베리 59%, 견과류 31%, 즉류 31% 소비가 늘었다.

신선 편이 식품, 미니 농산물, 시판 김치, 가정간편식 등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즉석밥, 즉석식품 및 냉동식품의 구매가 증가하였으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찬류(37%↑)의 구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도 표기상품, 비선호 부위 등 새로운 구매 품목이 등장하고,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구매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참외, 수박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당도 표기상품의 구매가 늘고 있으며, 돼지 앞다리 등 기존 비선호 부위 구매가 늘고 있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 전통시장·대형마트·슈퍼마켓 이용 구매는 줄고 온라인·직거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농식품 가공시장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고, 가공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구당 가공식품 구매액은 2015년 월 14만 6,000원에서 2019년 17만 5,000원으로, 약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가공형태는 과일인 경우 음료, 채소는 반찬류, 곡류는 간식류로 나타났다.

과일은 복숭아·사과 주스, 채소는 시판 김치, 깻잎 반찬, 녹즙의 소비가 증가했다. 곡류는 가공밥, 쌀 피자 구

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격변동에 민감한 채소의 경우 통조림 등 새로운 저장법 개발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가공식품군 개발로 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형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네 슈퍼마켓과 온라인 구매는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구매는 감소했다. 가정 내 조리 횟수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손쉽게 조리, 취할 수 있는 농식품 및 저장 기간이 긴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산 농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나 국내산 소비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0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는 26일 오후 2시 농촌진흥청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rdakorea>)을 통해 생중계 된다. 농촌진흥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으며, 품목별 영상자료집은 행사당일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에 게시된다. /김윤상 기자



'가장 매운' 고추 속 유전자원 소개 19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린 '고추 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에서 연구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매운맛을 내는 고추인 미국의 캐롤리나 리퍼(Carolina Reaper)를 비롯한 41개국 448개 고추 속 유전자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협사료 전북지사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총력'

지난 주말(8월8일~9일) 전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남권 지역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피해는 많은 양의 강수와 강물범람으로 인한 축사 침수피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 전북지사(지사장 정 준)는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사는 지난 10일부터 피해가 심각한 남원, 순창 및 임실지역에 전기설비 전문가, 수의사 및 사양관리 담당을 1팀으로 하는 수해복구 긴급지원 드림팀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팀의 역할은 전기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피해가축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 및 사양관리지도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는데 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전북지사는 전북 양축농가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원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농어촌공, 수해복구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남원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물 피해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비상근무 체제(휴일 반납)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피해현황은 저수지 외사면 토사 유실, 배수장 및 양수장 침수, 용(배)수로 파손 및 토사 매몰 등 총 220개소로 피해액은 4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사는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배)수로 피해지역의 우선 긴급복구에 본부 및 타 지사 직원 약 100여명이 자진 참여해 토사 유입으로 막힌 농수로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춘성 지사장은 "항구 복구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설물 복구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상향 조정

농진청,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평택)에서 2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발생지역(안성, 천안, 충주, 제천)은 7월 하순 이후 의심신

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 조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잠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돼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관심' 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주 1~2회 정밀조사(8~9월)와 11월 발생과원 반경 2km이내 전수조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 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 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해대응과 정중심 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산업부, 주택·건물 태양광 설치 보조금 추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려는 주택과 건물에 최대 6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는 얼마 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예산이 활용된다. /뉴시스

외국인가입자 권익 보호 앞장

국민연금, 전용 콜센터 서비스 도입 이후 7월까지 누적 상담 서비스 26만여건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14년 외국인 전용 콜센터 서비스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26만여 건 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외국인 전용 콜센터는 2014년 3개 언어(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7개 언어로 확대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콜센터는 전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32만명) 중 가입자가 많은 나라의 언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8명의 모국어 상담원이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모국어 상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부터 연금 청구 안내까지 외국인들

의 수급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안산의 경우 외국인이 직접 방문·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로 201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4명의 외국어 상담원이 근무 중이며, 그 중 인도네시아어 상담원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제도홍보 및 가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5년 동안 근무 중인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던 카자흐스탄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 우수사례도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